

“전라선 ‘KTX 전용선’ 건설해 달라”

여수·순천·광양상의, 익산~여수간 ‘4차 국가철도망계획’ 반영 촉구 ‘서울 2시간대’ 접근성 개선...광역 교통망 확보는 경제활성화 근간

여수와 익산을 오가는 전라선 철도의 ‘KTX 전용선’ 건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25일 여수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여수·순천·광양상공회의소는 최근 공동으로 익산~여수 간 전라선 KTX 전용선 건설을 위한 건의서를 국토교통부, 국회, 전남도, 여수시 등 관계 기관에 전달했다. 이들 상의는 건의서에서 “여수·순천·광양을 중심으로 하는 광역 광양만권은 매년 200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전국 대표 관광지이고, 여수·광양 산업단지는 최근 3년 평균 생산액이 80조원을 넘는 등 활발한 산업 활동이 이뤄지는 산업도시”라

며 “그런데도 전라선 KTX는 고속철도라기보다 일반철도로 봐야 할 정도로 느리다”고 지적했다. 현재의 전라선(익산~여수)은 고속철도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시속 150km의 속도로 운행하기 수도권까지의 시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것이 이들 상의의 주장이다. 실제 전국 어디에서든 KTX를 타면 2시간 내 서울에 도착할 수 있지만, 서울~여수 구간만 전국에서 유일하게 3시간이 넘게 소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상의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21~2030)에 전라선(익산~여수) KTX 속도

개선 대책으로 KTX 전용선 건설 계획을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전라선 KTX 전용선 건설계획이 확정되면 광양만권의 새로운 동력이 확보돼 여수 경도해양관광단지 개발, 여수산단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 2023년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성공 개최 등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여수상의 관계자는 “서울~여수 간 2시간 내 생활권 형성으로 물리적 접근성뿐 아니라 심리적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것”이라며 “수도권으로의 접근성 개선은 광양만권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여수상의는 지난 2019년 5월 광주송정~여수 간 KTX 복선 전철화 사업과 수도권~여수엑스포역 간 열차운행 횟수 확대 등을 건의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kwangju.co.kr



1000년 전 시집 온 중국 색시처럼 수줍게...

‘국내 최고’ 구례 산동면 산수유 시목 활짝

구례군 산동면에 있는 국내 최고의 산수유 시목에서 노란 꽃이 활짝 피었다. <사진> 1000년 전 중국 처녀가 시집오면서 가져와 심었다는 구례 산수유는 전국 생산량의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1999년부터 산수유꽃 축제를 개최해 전국 대표 봄꽃 축제로 성장했다. 구례 산수유는 2008년 지리표적품 등록이 됐으며, 2011년

구례군이 산수유산업특구로 지정됐다. 지난해에는 구례 산수유 시목종자가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종자 연구시설인 씨앗 금고에 저장됐다. 구례군은 산수유 열매를 활용한 다양한 제품개발과 함께 기능성 식품 원료 등록을 추진하는 등 주민소득증대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고흥군, 급경사·붕괴위험 지역 정비...100억 투입

남양·축정1지구 등 4곳

고흥군은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100억원을 투입해 급경사지역과 붕괴위험지역 4곳을 정비한다고 25일 밝혔다. 봉래 축정1지구와 남양지구는 주택이 절개지에 가까워 사면 붕괴와 낙석 위험이 심각한 곳이다. 특히 많은 비가 내릴 경우 산사태에 의한 주택 매몰 등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곳으로 정비가 시급한 상태다. 고흥군은 축정1지구에 41억원, 남양지구에 17억원 등 총 사업비 58억원을 투입해 정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남양지구는 오는 10월, 축정1지구는 내년 4월까지 준공 예정이다. 또 올해 신규 사업지구로 고흥읍 봉황산 주변 남계3지구(22억원)와 풍양면 고옥1지구(20억원) 등 42억원을 투입한다. 이 곳은 설계용역과 사업 시행을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송귀군 고흥군수는 “군민이 생활하는 주변에 급경사지 또는 붕괴위험 지역이 있는지 제대로 파악해 빠른 시일 내에 안전하게 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u@kwangju.co.kr



고흥군은 군민 안전을 위해 100억원을 들여 위험한 급경사지역 정비사업을 진행한다. <고흥군 제공>

놀 배우 체험하 GO! 광양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개관

시 직영, 시간제보육 등 원스톱...선착순 온라인 예약제

광양시 육아지원사업의 거점이 될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최근 문을 열었다. 25일 광양시에 따르면 시는 ‘아이 양육하기 좋은 행복도시 광양’ 실현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지난 19일 개관했다.

중동로에 건립된 센터는 광양시 직영시설로 시비 47억원 등 총 사업비 63억원이 투입됐으며, 건축면적 2196㎡(664평),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다. 센터는 선착순 온라인 회원 예약제로 운영된다. 주요시설로는 놀이체험실, 시간제보육실, 장난감

도서관, 영·유아프로그램실, 대강당, 다목적실, 육아카페 등을 갖췄다. 광양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인 영유아, 보호자, 지역 내 어린이집 등에서 이용할 수 있다. 박을미 광양시어린이집연합회장은 “센터가 영유아의 올바른 성장과 어린이집의 보육서비스 질을 높이는 기관으로 성장하길 기원한다”고 축하했다. 정현복 광양시장은 “광양시는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도록 공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부모가 아무런 걱정 없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

GS칼텍스, 장애인단체에 4000만원 기탁

여수국가산단 대표 기업인 GS칼텍스가 지난 23일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수지역 장애인단체에 성금 4000만원을 기탁했다. <사진> 이날 전달된 성금은 GS칼텍스 여수공장 임직원들이 십시일반 모금했다.



GS칼텍스는 청각·언어 장애 특성상 의사소통이 어려워 다른 사회복지단체보다 외부 후원이 절실하다는 소식을 듣고 성금을 쾌척했다. 이두희 GS칼텍스 생산본부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이 필요한 청각·언어 장애인들에게 GS칼텍스 임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의 성금이 유용한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수시지회는 지원금으로 청각·언어 장애인을 위한 차량구입과 미디어실 구축 사업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GS칼텍스는 지난해부터 시각장애인을 위한 봉사활동으로 점자교구를 제작해 시각장애인 단체에 기증하고 있다. 지역 내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장애인 10여 명을 사내 복지시설 서비스에 고용해 꿈과 희망을 잃지 않도록 하고 있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7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한번쯤 생각해 보세요!

- ☑ 허리, 엉덩이, 다리까지 아프고 저리며 통증이 있다면... **허리디스크?**
- ☑ 목을 돌려서 어깨가 아프다... **목디스크?**
- ☑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고, 무릎이 자주 붓는다면... **퇴행성 관절염?**
- ☑ 팔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기 어려워진다... **회전근개파열?**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신세계안과 의/학/상/식 특특

눈 앞에 날파리가 날아 다녀요

<비문증 원인과 해결법>

- ◆ 비문증이란?
눈 속 내부의 80%는 투명한 젤과 같은 유리체로 채워져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젤 성분이 물로 변하게 되는 유리체 액화가 진행하면 투명한 유리체 안에 혼탁이 생기게 됩니다. 이 혼탁은 밝은 곳에서 그림자를 생기게 해 마치 모기나 날파리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를 비문증 또는 날파리증이라 부릅니다.
- ◆ 증상
작은 물체가 한 개 또는 여러 개일 수 있으며 형태도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파리나 모기 같은 곤충 모양, 점 모양, 동그란 모양, 아지랑이 모양, 실오라기 같은 줄 모양 등 다양한 형태로 보이며 수시로 여러 형태로 변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눈을 감아도 보일 수 있으며 보고자 하는 방향에 따라다니면서 보이는데 맑은 하늘이나 하얀 벽, 하얀 종이를 배경으로 보았을 때 대비가 잘 되기 때문에 더욱 뚜렷하게 보입니다.
- ◆ 치료방법
눈앞에서 어른거려 불편을 느낄 때는 잠시 위를 쳐다봤다가 다시 주시하면 일시적으로 시선에서 없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는 계속 보일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대개는 열어지고 적응이 됩니다. 떠다니는 물체가 숫자나 크기에 있어서 여러 달 동안 변화가 없다면 이 자체로는 수술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갑자기 떠다니는 물체가 많아질 때, 또는 눈앞에 무엇이 가리는 것 같은 증상이 느껴질 때는 반드시 안과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비문증과 같은 증상을 보이지만 실제로는 심각한 망막질환인 경우가 많고, 이런 경우 발견 시기에 따라 시력의 유지 정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조속한 진단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 신세계안과 1566-9988